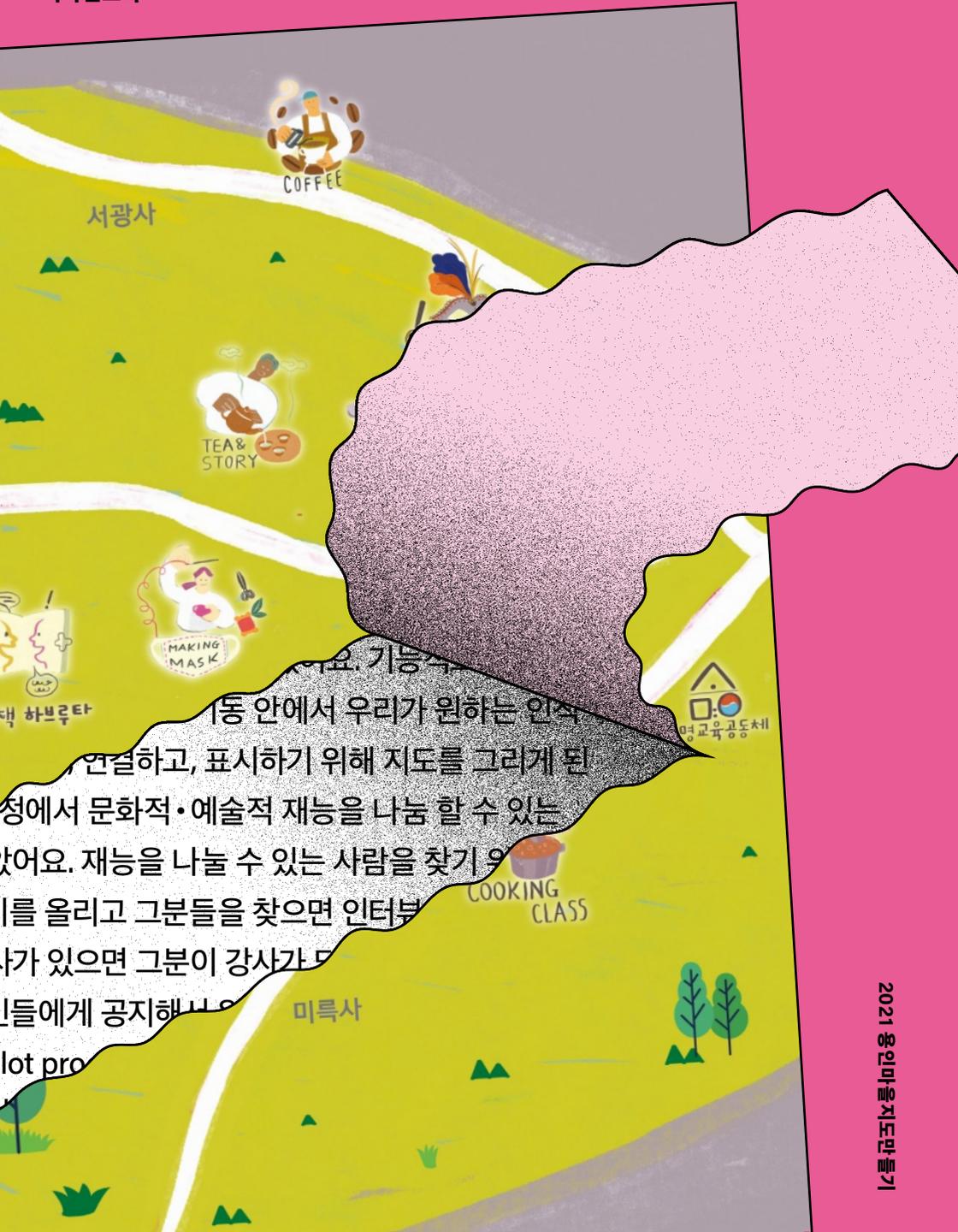


Behind book 고기동편

비하인드북



여교육공동체
고기동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적
연결하고, 표시하기 위해 지도를 그리게 된
성에서 문화적·예술적 재능을 나눔 할 수 있는
있어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
기를 올리고 그분들을 찾으면 인터뷰
사가 있으면 그분이 강사가 되
인들에게 공지해 나
lot pro

Behind book 고기동편

이 책은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기록의-기록> with 만물작업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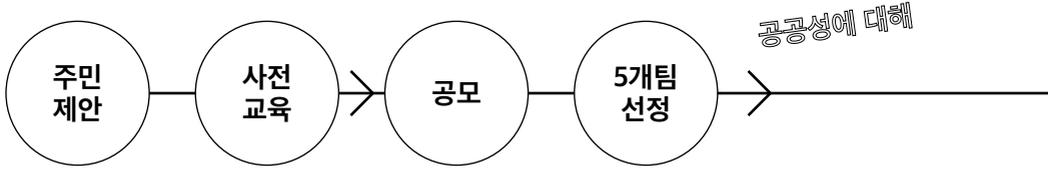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작당한다는 것은 사실 받은 괴롭고 받은 즐거운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고, 그럼에도 소소한 웃음과 찐한 교훈은 남게 되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끝에는 '좋았다면 추억이고 아팠다면 경험이다.'라는 소회가 남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갈등보다 웃음과 교훈이 조금 더 드러난 '잘된' 결과물이 성과를 증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전해지지 않은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운영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으로 불거졌다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즈음에는 결과물에 대한 보람으로 남아 무엇이 그 시행착오를 만들었는지 잊게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의 순간을 되짚기 위해 그 이면, 이전의 과정을 관찰하고 묻고 기록했습니다.

플랜포히어는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answer을 들려주었고 때로 다른 질문에도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behind story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록의-기록>은 질문을 통해 프로젝트와 사람들의 연결을 되짚어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한 무수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놓친 시행착오의 순간을 상기시켰고 우리는 그 질문과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고 마을마다 한 장의 지도가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만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웃음과 교훈을 버무린 「비하인드북」과 더 나은 다음을 위한 「47개의 질문카드」를 남깁니다. 우리의 기록이 누군가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길 바라며!

용인마을지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과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과 준비

지속적으로-오래 가는

내부자들의 소통

도시와 공공

마을과 사람들

아카이브 프로젝트 <기록의-기록>진행과정

1. 조사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조사/관찰/기록을 위한
활동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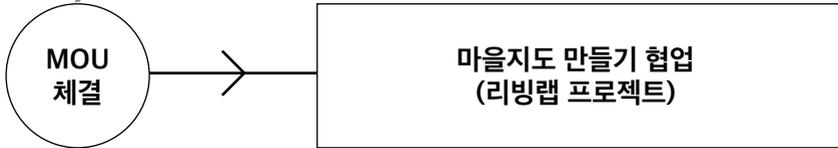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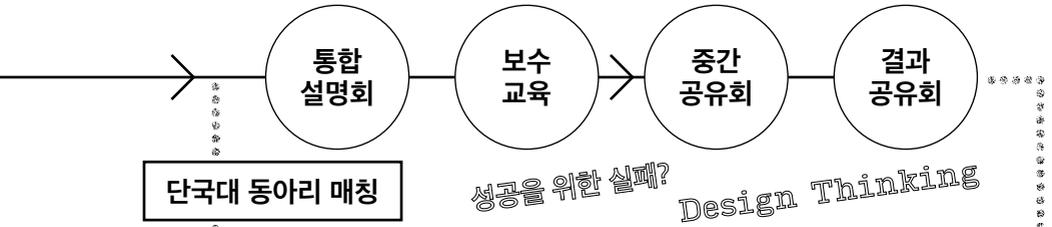
9월 중

2. 인터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 과정
중의 어려움을 스스로 발견,
파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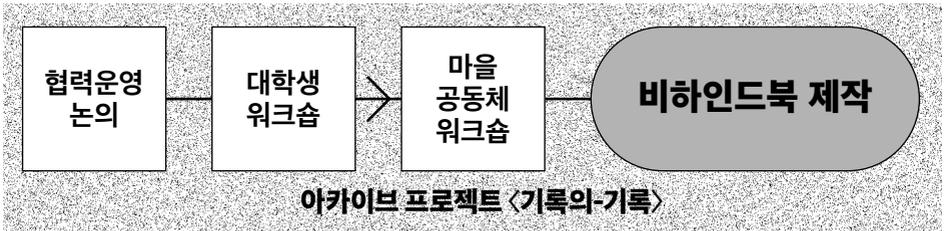
10월 5-9일 온라인 인터뷰
마을 모임 / 대학생 동아리
각 팀별 1회, 총 10회 진행

세대 간의 소통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른 것과 틀린 것



용인문화재단 & 플랜포이어

3. 워크숍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주제를 돌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with 만물작업소

11월 12일 대학생 동아리 온라인 공유회 1회 진행
11월 15-17일 마을 모임별 오프라인 워크숍 각 1회, 총 4회 진행

4. 비하인드북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도에 담지 못한 정보'가 아닌, '지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의 흔적'을 담은 비하인드북(소책자)을 만든다.

12월 중

5. 질문카드

프로젝트 전체과정을 갈무리 하고, 다음의 기록 및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질문카드를 제작한다.

12월 중





참가팀

고기동

고기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며 각자 만들어내는 문화와 자원이 많습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지만, 서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적·문화적·예술적 자원을 흘려보냈습니다. 더 흘러가기 전에 마을을 관찰하고, 발견한 자원을 지도에 표시하여 서로를 더 많이 연결하고자 합니다.

대화한 사람들

황지순 강정화 이은주

with 단국대 동아리 단국로드

“지도를 만들 때 장소별로 특징을 잡아서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 특별한 경험 같은 게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이지만, 이 사업을 같이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이 깊어졌거든요. 주민분들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장소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에 남았구나.’ 싶어요. 저희 고기동이 원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관광지roman 생각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잘 동화되고 어울려서 ‘하나의 동네구나.’ 그렇게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심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고기, 고기동엔 뭐가 많아요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지순 이 사업을 딱 꼬집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고기동 마을에 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기동 안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생겼어요. 그 그림을 실현하기에 마을지도 만들기가 좋은 수단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이은주 저는 맘카페를 통해 [고기동]팀에서 기획한 모든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난 황지순 대표님이 저에게 클래스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마을지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학생들과 어떤 연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이디어를 물어보셨어요.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있고 제가 속한 고기초등학교는 학부모들 간에 소통이 꽤 잘되었어요. 학부모 교육 원데이 클래스에서 재능있는 학부모분들이 재능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문화적인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대표님에게 몇 가지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같이 좀 해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공모사업에 참가자로 참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이끌어가는 건 부담이 돼서

처음에는 '조언은 가능하지만, 참여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표님이 '아이디어 회의하는 데 참여를 해보겠느냐?'라고 하셔서 처음으로 스태프분들을 만났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대화도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고기동의 많은 이웃을 떠올리며 활동을 계획하셨는데 고기동은 어떤 곳인가요?

이은주 고기동에는 공동체가 많아요. 도시공원 일몰제 반대로 뭉쳐진 마을 주민, 그 이전에는 고기초등학교 학부모와 고기교회가 있어요. 고기교회는 굉장히 오래되어 고기교회만의 소통 창구가 있어요. 고기동에는 문화 활동도 많고 소명학교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대안학교도 다양해요. 아쉬운 점은, 학교만의 공동체는 있는데 공동체간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을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소명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꿈의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와서 체험을 같이하고, 꿈의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이 도마 만들기 강사로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지도를 그리고, 고기교회에서도 뭔가를 하고요. 마을지도 만들기로 서로 가지고 있던 것을 연결하면서 고기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정화 제가 볼 때 고기동은 많은 세대가 어우러진 동네인 것 같아요. 보통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학군을 중심으로 모여 가족 단위로 이사 오는 단지가 있어요. 이런 곳을 요즘에 '학세권'이라 하잖아요. 반면에 노인들이 주로 사는 정적인 단지도 있어요.

고기동에서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한다는 것과 그들이 각자의 욕구를 찾아 갈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기초등학교 중심으로 모이는 세대, 텃밭이나 마당을 가꾸는 은퇴 세대,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웠지만, 아직 은퇴 세대는 아닌 현업에 종사하는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을지도 만들기로 알게 된 분들을 보면서 '고기동 동네가 좀 재미있는 곳이구나!' 느꼈어요.

이은주 고기동은 마을 활동에 남성 참여율이 높은 편이에요. 일단 고기초등학교만 예로 들어도 녹색 어머니의 경우 인원이 적어서 전교생 학부모가 다 서야 해요. 더욱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 환경이 위험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교통지도를
서야 해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서로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아빠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예요.

마을의 인연, 장소를 기록하는 마을 지도

황지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마을지도의 주제가 인적·문화적·예술적 자원발굴이었어요. 기능적으로 지리를 알아보는 지도가 아니라 고기동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고, 표시하기 위해 지도를 그리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문화적·예술적 재능을 나눔 할 수 있는 주민을 찾았어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카페에 공지를 올리고 그분들을 찾으면 인터뷰를 했죠. 재능 나눔에 의사가 있으면 그분이 강사가 되어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만들었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을 모으지 못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어요.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이은주 황지순 대표님은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전 '마을에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스태프가 여섯 명이고 당시엔 네 명이었는데 계획을 다 듣고 스태프들과 저는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어요.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계획은 대표님의 머릿속에 짜여있고 저는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입장이어서 재미있게 했어요. 올해 활동에는 농놀이가 있었어요. 농놀이는 받을 일구고 나온

수확물로 만드는 놀이인데, 스태프 중 한 분이 농놀이 지도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 과정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강정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업도 있었고 '할 수 있을까?' 했던 것들도 과감하게 했어요. 다른 참여자들을 위한 수업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제가 진행에 참여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손재주가 없어서 수업 진행은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것도 있었어요. 잠시나마 수업에 집중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능력을 함양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이 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활 일부를 힐링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 또한 수업임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은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장터를 꿈꿀 수 있어요. 6월 초에 도깨비장터를 열면서 꽤 많은 준비를 했어요. 현수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쇄소에 맡기는 것보다 고기동 주민이 직접 그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고기동에는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들이 많거든요. 저희 딸에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했는데 예쁘게 그려 아이의 손 그림으로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덕분에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맘카페와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마을 주민이 셀러가 돼서 부스 신청을 하고, 과정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우천으로 연기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셀러들이 있는데 그냥 끝내긴 아쉬워서 랜선 판매를 했어요. 판매상품 중 계절상품도 있고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판매를 못 하면 아쉽잖아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으니까 포장을 해두면 픽업을 해가는 식으로 기획을 했고, 거의 완판이 됐죠.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9월로 연기한 장터는 코로나 4단계 때 집합 금지로 취소가 되어 너무 아쉬웠어요.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황지순 느낀 점이라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어려웠던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좋았던 점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성도 확인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확장될 수 있구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6개월 동안에 저는 집중된

상태로 쪽 보냈어요. 물론 안 좋았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일 중 쉬운 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오히려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사업을 더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끔 해서 힘들었어요. 좋았던 기억이 7 이라면 별로 안 좋았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3 정도의 비율로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제일 가치를 두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거든요. 요즘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무한 확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사업 기간 동안 제가 발견한 점은, 실현이 가능할지 고민했던 부분에서 사람들의 욕구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죠.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가능하다면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정화 스태프들과 함께 기획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수의 모임이지만, 끈끈함과 결속감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만을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남의 능력도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주고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스태프와 실무진들을 보면서 '꼭 영리가 아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공동의 선의가 제 눈앞에서 발현되는 순간을 본 거죠. 항상 공모사업들을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만의 일이라 봐왔는데 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50년 이상의 세월을 겪었지만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이은주 일단은 시간적인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주부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전에 고기동 마을지도 만들기 말고도 다른 소규모 모임에 많이 참여했었어요. 저는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소극적인 참여가 편해요.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으면 다른

걸 해야 할 때 언제든지 받을 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그리기 동아리에서 원조 멤버였는데, 딱 얽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시작을 계속 미뤘는데 이상하게 지도 만들기는 그냥 스며든 것 같아요. 스며들어서 하려고 마음먹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지도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이은주 처음에는 단순히 어디를 찾아가야 이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지도 형태를 생각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 되면서 중간에 의논한 게 블로그 형태였어요. 블로그에 저희가 체험했던 것들의 경험담을 올렸어요. 프로젝트 초반에는 저희 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단국대 동아리 [단국로드]팀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단국로드]팀과 첫 미팅을 해보니 함께 하려면 저희가 생각한 방향을 달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끼리는 일단 욕구가 맞고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데, [단국로드]팀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고 고기동에 관한 지식도 없다 보니 함께 뭘 해야 할지도 몰라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가진 방향성은 확고했기 때문에 생각을 전하고, [단국로드]팀의 의견을 묻고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면서 고기동에 대해 같이 체험하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험 후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서로 소통했어요.

**혼자는
버겁지만, 함께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다른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강정화 아무런 준비 없이 스태프로 참여했어요. 스태프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사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미리 공부하고 임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준비 과정이 미흡했고 이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황지순 저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용 공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공용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것이 고기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데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되거나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저는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40대 초반인 분들은 아이가 어려서 양육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메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후반 이후 세대예요. 현재 소통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디어를 다루거나 결과물을 만드는데 익숙한 실무진이 없으면 활동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은주 도깨비장터를 진행할 때 현수막을 걸고 맘카페와 마을의 소통 창구에 소식을 올렸어요. 마을의 일이고, 행사이고,

재미난 경험이기 때문에 막연히 모두가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천으로 도깨비장터가 취소되고 난 다음 맘카페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코로나로 취소됐다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장터를 연다는 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글을 보고 사람 마음이 다 같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걸린 현수막을 떼서 마을 논두렁에 버린 것을 보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을 일이니까 참고 있었다.’,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산책하러 못 나간다.’라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의외였어요. 마을 행사면 모두 한마음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난의 눈으로 볼 거라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마을 활동에서 입장이 다른 분들을 꾸준히 더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이은주 만남의 장으로 직접 오셔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저희도 ‘이건 이려 이려한 거고,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행사 신고도 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니 솔직히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 의욕도 떨어지고요. 다행히 그 게시글에 저희의 좋은 취지를 이해한 분들이 답변해주셔서 큰 분쟁 없이 지나가고 또 힘을 얻었어요.

**마을지도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도했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황지순 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요? 단순한 사람이라서 '모든 상황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생긴다.' 생각해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하는 일이라면 제가 못 하면 끝나는 거지만, 함께하면 제가 못 하는 일이 있을 때 보완해주는 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실제로 보완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저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에는 언제나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에게서 버거운 것일 뿐이지 답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겪은 문제를 말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는 다른 행정에서도 보완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지만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흩어진 이웃이
모여 함께
내딛는 '한 발'
마을지도 만들기**

‘마을지도 만들기’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은주 마을지도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의 도구인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활동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저에게 온 것 같아요. 그 점이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강정화 일단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처음으로 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싶어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처음이 어렵지, 많이 하다 보면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마을지도 만들기는 다양한 세대가 있는
고기동에 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덕분에 다양한 세대 간의 어떤 아우름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황지순 그동안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못 했던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했는데 마을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공동체가 생겼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 마을지도 만들기의 가장 큰 가치라고 봐요.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업이 끝나면 모임의 동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저희에게 지도는 더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더 좋은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사람들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봐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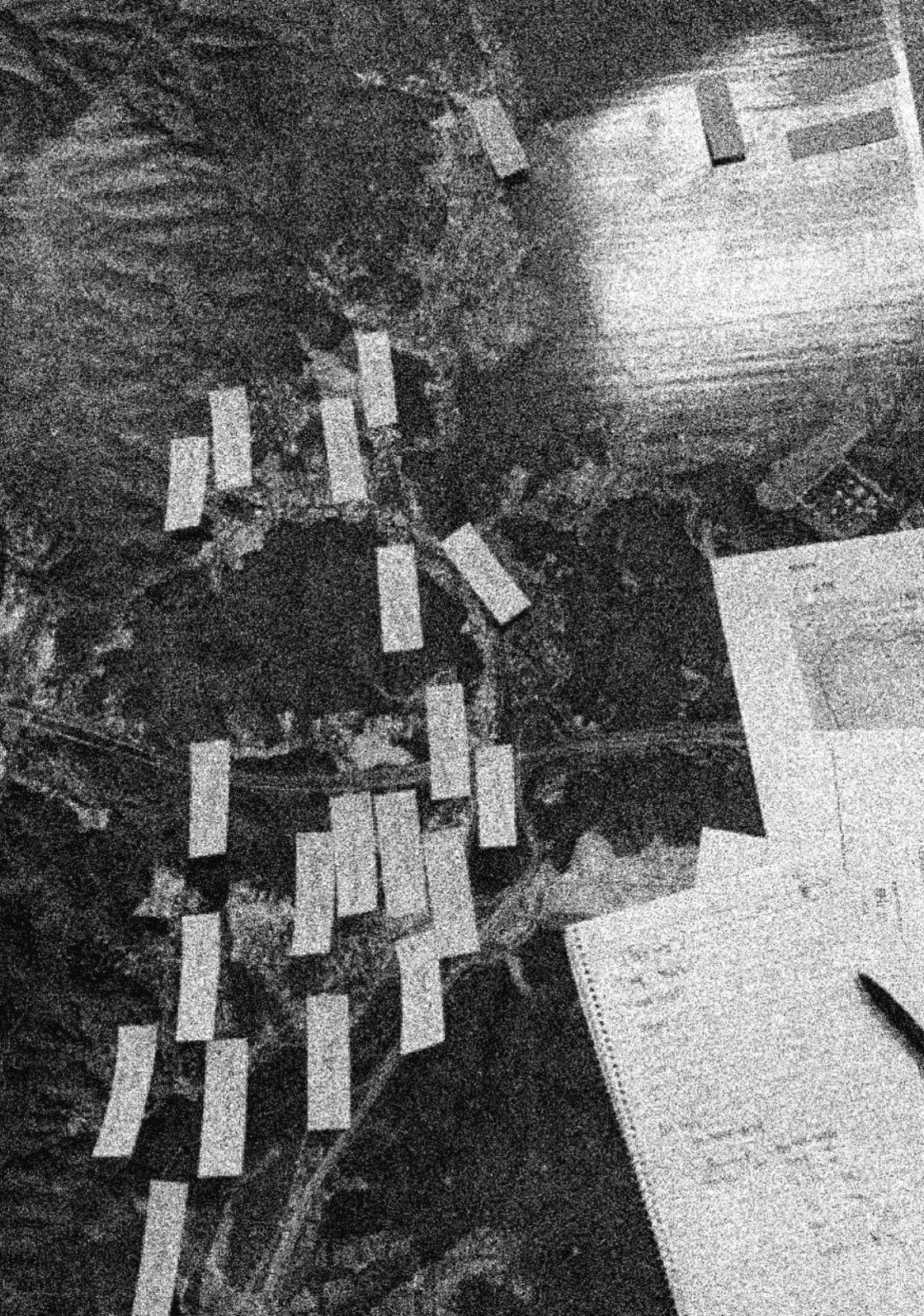
강정화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막 건의한다고 쉽게 고쳐질 부분은 아니고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관의 문제잖아요.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어서 더 풍요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희가 처음이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요. 물론 주최 측에 의한 제약도 있지만, 그 제약을 이용해서 또 다른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저희는 생각만으로 끝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마을지도 만들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 사업을 한 것은 큰 가치를 둘 만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 점에 다른 분들도 자극을 받아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체 사업이 그리 멀지 않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황지순 또 다른 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마을사업의 핵심 가치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비교적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있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계기에 시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앞으로 공동체가 발전할 방법이겠다 싶어요. 저는 이 사업을 추천해요.

**일단 해보세요. 중간에 그만두어도 되고
포기해도 되고요.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거죠. 시작이 반이니
일단 해보세요.**





왜 비하인드북이 되었을까?

플랜포히어와 <기록의-기록>을 준비하며

용인문화재단 서혜인 “활동 과정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이 모이면 또 다른 발현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문화도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청년 활동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결과 지향적으로 사업이 흘러갈 때 우리는 과정의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각자가 발견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유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후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또한, ‘과정은 사라진 채 결과물만 남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었고, 이것이 비하인드북 제작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도달한 사람들은 과정이
휘발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기록하지 않으니 기억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그 즉시 알아채지 못해서, 온 감각들을
결과물에 집중하느라, 또는 빠른 속도에 떠밀려가느라
우리는 과정을 놓치곤 합니다. 모래를 체에 받치면 굵은
모래만 남고 나머지는 흩어지는 것처럼, 관찰자의 시선과
감각에 섬세하게 날이 서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니까요.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아카이브 작업을 처음
[플랜포히어]에 의뢰했던 것도, 지도를 만든 사람들과
지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지도에 담아내지 못한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기획자들의 체로 다시금 걸러보기 위해, 참여자 스스로
운영과정을 반추해보며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을지도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북이 마을지도를 만든 마을공동체와 대학생
동아리에게는 지난 과정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앞으로 지역 기반의 활동을 잘 해내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아니지만
흥미롭게 마을지도를 펼쳐 보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한 장의
지도 이면에 담긴 이웃들의 고민과 노력을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 더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날들을 위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는
〈기록의-기록〉 비하인드 워크숍을 진행하며

만들작업소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곱씹고 더듬어 한곳에 잘 모일 수 있도록
〈비하인드 워크숍〉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남겨진 몇 개의 결과물은 프로젝트를 이끈
이들이 가지는 각각의 시선과 프로젝트 중에 생긴 크고
작은 마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아쉬움 모두를 읽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를 누군가에게는 이 비하인드 북에 남겨진 이야기가
어쩌면 앞으로를 위한 작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바람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잠시 제쳐둔 이야기를 떠올려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기록에 담긴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싶은 마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주변 환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 한동네 안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돌이킬 수 있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며 시작되었고 떠올려보니 지나온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 부대꼈던 마음들까지도 어렵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공간을 살아간대도 많은 사람이 가진 생각은 너무도 여러 가지 모양이기에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는, 쏟아야 할 힘과 시간의 크기가 절대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종착지까지 부단히 걸어온 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마을 지도를 만들게 된다면'이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오래된 박물관에 차곡차곡 쌓인 사소한 관찰과 기록들을 상상하거나, 조금 더 재미있는 모습을 가진 지도를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동네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의 뒤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들이 그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 출발선 위에 우리도 서기 위해서. 옆자릴 둘러봤을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곳에서 작디작은 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개의 마을, 다섯 개의 이야기

비하인드북 편집소감

정다정 길을 찾을때면 핸드폰 속 지도를 꺼내어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설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이리저리 방향을 맞추면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한 번에 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도통 이해하지 못해 조금 헤매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경유로 담은 중간 목적지 때문에 더 복잡하게 길을 걷다 겨우 목적지를 찾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설계된 지도도 이해되지 않아 이 길로 저 길로 걸을 때가 있는데 마을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지도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섯팀은 각 지도에는 '무엇'을 담았습니다. 생태, 문화재, 재능을 가진 인적 자원, 시장, 오일장. 저의 일상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오래 여러 번 관찰하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오래 여러 번 둘러보고 기록하고 보내는 활동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만들어진 지도의 모양새를 떠나서 마을공동체 분들과 단국대 대학생 팀들에게 가장 먼저 수고했다는 말을 가득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약해진 관계들을 다시 잇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마을 지도를 만든 팀들의 인터뷰를 한 편을 읽고 나면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마다 공통으로 '그만'과 '다음' 이야기가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간에 '그만둘까?'를 고민하였지만, 결말에는 어떤 '다음'을 상상하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인원으로 만남을 규정지을 정도로 함께 사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2021년에 함께하기를 고민하였던 분들이라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때가 오면 더 멋진 다음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다음 지도를 만드는 일에는 경로 이탈과 재검색이 원활하게 이뤄져 목적지를 가는 일들이 즐겁기를 다정히 바랍니다.

Behind book
비하인드북: 고기동 편

2021년 12월 발행
발행인 용인문화재단

편집 플랜포히어, 정다정
대화한 사람들 강정화, 이은주, 황지순
디자인 플랜포히어

